

간호대학생의 성취목표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지지의 매개효과

조혜경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influences on th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due to nursing students' achievement goal: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autonomous support

Cho HaeKy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취목표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교수자의 자율성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C도에 소재하는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을 편의표집하여 수집된 294명의 자료를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취목표와 교수자의 자율성지지는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성취목표의 하부요인 중 숙달목표($r=.626, p<.001$)와 수행접근목표($r=.553, p<.001$)는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정적 상관, 수행회피목표와 자기조절학습능력과는 부적 상관($r=-.326, p<.001$)이 있었다. 교수자의 자율성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있었으며, Sobel test로 검증한 결과 교수자의 자율성지지는 숙달목표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Z=3.922, p<.001$). 본 연구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자기조절학습능력 강화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통해서 관련요인들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교수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성취목표, 자기조절학습, 자율성지지, 교수자의 자율성지지,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based on descriptive research is to examine the influences on th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due to nursing students' achievement-goal and to make sure mediating effect of autonomous support of professor. A convenience sample of 294 nursing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a college in C province from April to May, 2018. Data are analyzed using SPSS/WIN 21.0 program. As a result, it is turned out that there a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astery goal, performance approach goal,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autonomous support of professor. In the Sobel test results, autonomous support of professor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mastery go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Z=3.922, p<.001$). So, a new teaching method should be developed through the convergence of related factors of self - regulated learning ability.

Key Words : nursing student, achievement goal,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utonomous support, mediating effec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초고령화 시대에 요구되는 간호 인력의 부족은 취업이 잘되는 간호학과로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게 하였고,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훌륭한 간호사로써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야하는 교수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Dr. David Sackett이 '의대에서 배울 내용의 절반은 졸업 후 5년 내에 이미 잘못되었거나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배울 것은 스스로 배우는 것이다'라고 할 만큼[1]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2]. 특히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로서 임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 스스로 배움을 지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목적을 설정하며 배움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인지 및 동기 및 행동을 계획하고 점검하며 실행해 나가는 자기조절학습능력[3]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Pintrich와 De Groot(1990)는 자율적인 환경에서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촉진된다고 하였는데[4] 여러 연구들의 결과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5,6]. 그러므로 교수자는 자율성지지를 통해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성지지는 자기주도적이고 자율적이고자 하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으로 자율성을 지지하는 교수자는 긍정적인 정보와 피드백을 주며 자율성을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학습에 몰입할 수 있게 하며 문제해결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하면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7,8]. 자율성이 부여된 환경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촉진하고 학습자의 유능감과 성취목표가 향상되어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9].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동기적, 인지적, 행동적 전략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데 인지적으로는, 자발적으로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며 자신의 학습계획과 목적을 스스로 설정하고 자기 점검과 자기 평가를 하면서 학습에 대한 통찰력과 확신을 갖게 된다. 동기적으로는, 자기 효능감이 높고 자발적이며 과제에 본질적인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며 행동적으로는, 학습을 위한 환경을 선택하고 창조하며 조건을 구하면서 자기교수와 자기강화를 하게 된다[10]. 이때 학습자는 학습에 주도권을 가지고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므로 학습상황에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몰입에 잘 도달할 수 있다[11]. 학습자 스스로 목적 지향적이고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면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12].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어떻게' 자신의 학습을 조절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성취목표는 '왜' 학습하려고 하

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13]. 성취목표의 세 가지 하부요인 중 숙달목표는 학습 자체를 목표로 하며 결과에 대한 노력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노력의 성과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며 능력에 비해 너무 어렵거나 쉬운 과제보다는 노력을 하면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적절한 도전을 선호한다[14,15,16]. 수행접근목표는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도전적인 과제보다는 단기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거나 우월한 방식으로 수행함으로써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한다[15]. 마지막으로 수행회피목표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실패를 회피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어[17]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낮은 자신감과 부정적 자아개념, 학습된 무기력감을 보인다[18]. 성취목표의 성향에 따라 학습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는 학습자의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성취목표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대한 연구들은 학습자의 학업성취와 학습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부분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결과 중심의 교육보다는 학생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은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는 팽창하는 정보와 지식을 능숙하게 처리하고 스스로 배움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 학습자 스스로 배우는 것을 늘려 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자율성을 가지고 도전해나가도록 교수자는 학생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전공 과목에 대한 이론과 병행 실습을 병행하게 되는 간호학과 3, 4학년은 자신의 목표가 뚜렷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입학할 때부터 전공영역이 정해져 있는 간호학과는 3학년 실습 나가기 전에 대부분 휴학을 결정하기 때문에[19] 실습에 대한 부담이나 전공 선택에 대한 갈등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이 어느 정도 해결된 이후에 3학년으로 진학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취목표와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많았으나 하부요인들간의 관계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고[20] 의과대학생과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비인지적 요인으로써 두 변수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으나[21] 교수자의 자율성지지와와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취목표, 자기조절학습능력, 교수자의 자율성지지의 관계와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취목표, 자기조절학습능력, 교수자의 자율성지지의 관계를 파악하고, 성취목표가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교수자의 자율성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2.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1.2.2 간호대학생의 성취목표, 자기조절학습능력, 자율성지지와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1.2.3 간호대학생의 성취목표와 자율성지지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1.2.4 간호대학생의 성취목표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자율성지지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성취목표, 자기조절학습능력, 교수자의 자율성 지지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성취목표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교수자의 자율성지지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5, 검정력 .85, 최대 그룹 수 10을 적용한 결과 연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가 290명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C도에 위치한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으며 간호학과 재학 중인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결측이 많은 6부를 제

외한 294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성취목표

성취목표 측정도구는 Elliot & Church(1997)[22]등이 사용한 성취목표척도를 윤아롬(2009)[23]이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하부요인에는 숙달목표 6문항, 수행접근목표 6문항, 수행회피목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윤아롬(2009)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숙달목표 Cronbach's $\alpha = .81$, 수행접근목표 Cronbach's $\alpha = .83$, 수행회피목표 Cronbach's $\alpha = .5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숙달목표 Cronbach's $\alpha = .82$, 수행접근목표 Cronbach's $\alpha = .85$, 수행회피목표 Cronbach's $\alpha = .67$ 이었다.

2.3.2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조절학습능력 측정도구는 정미경(2005)[24]의 대학생용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은 동기조절 32문항, 인지조절 31문항, 행동조절 25문항으로 총 88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동기조절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인지조절은 Cronbach's $\alpha = .91$ 행동조절은 Cronbach's $\alpha = .82$ 이었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은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2.3.3 자율성지지

자율성지지 측정도구는 Williams와 Deci(1996)[25]가 개발한 학습풍토 질문지(The Learning Climate Questionnaire, LCQ) 중에서 유지원(2011)[26]이 대학생용으로 번역한 교수자의 자율성지지 척도를 차유미(2017)[27]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이 교수자의 자율성지지 정도를 높게 지각함을 나타낸다. 차유미(2017)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C도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

은 후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취목표, 자기조절학습능력, 자율성지지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확인하였으며, Duncan으로 사후 검정하였다.
- 대상자의 성취목표, 자기조절학습능력, 자율성지지의 관계와 영향은 Pearson Correlation 상관관계와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성취목표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수자의 자율성지지가 미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경로의 곱으로 나타내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Sobel test로 검정하였다.

2.6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자료수집 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자료를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에도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으며, 연구 참여 중단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하여 익명으로 처리할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연구보조원이 설문지를 배포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과 같다.

전체 대상자 중 여학생이 220명(74.8%), 남학생은 74명(25.2%)이었고, 3학년 139명(47.3%), 4학년 155명(52.7%)이었다. 간호학과를 지원한 동기 중에서 취업이 잘되어서 121명(41.2%), 적성에 맞아서 53명(18.0%), 신념이 있어서 46명(15.6%),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원한 경우가 63명(21.4%)이었고, 기타 11명(3.7%) 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294, n(%))
Gender	Female	220(74.8)
	Male	74(25.2)
Grade	third grade	139(47.3)
	forth grade	155(52.7)
reason for nursing college application	employment	121(41.2)
	aptitude	53(18.0)
	faith	46(15.6)
	against my will	63(21.4)
	etc.	11(3.7)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취목표, 자기조절학습능력, 자율성지지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취목표, 자기조절학습능력, 자율성지지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성별에 따라 수행회피($t=-3.826, p<.001$)와 자율성지지($t=-3.046, p=.003$)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는데 수행회피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율성지지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학년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며, 간호학과에 지원한 동기에 따라 숙달목표($F=3.384, p=.010$), 자기조절학습능력($F=4.325, p=.002$), 자율성지지($F=3.257, p=.01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Duncan으로 사후 검정할 결과, 숙달목표는 신념에 따라 지원한 대상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원한 대상자보다 높았으며,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적성에 맞아서 지원한 대상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원한 대상자와 기타에 속하는 대상자보다 높았고, 자율성지지는 취업이 잘 되어서, 적성에 맞아서, 신념이 있어서 지원한 대상자가 기타에 속하는 대상자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ifference of achievement goal,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autonomous support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achievement goal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utonomous support
		mastery	performance -approach	performance -avoidance		
		t or F(p)	t or F(p)	t or F(p)	t or F(p)	t or F(p)
Gender	Female	.524(.601)	.452(.652)	-3.826* (.000)	.595(.552)	-3.046* (.003)
	Male					
Grade	third grade	-1.568(.118)	-1.840(.067)	.330(.741)	-.979(.328)	.390(.697)
	forth grade					
reason for nursing college application	employment [†]	3.384* (.010)	1.258(.287)	1.224(.301)	4.325* (.002)	3.257* (.012)
	aptitude [‡]					
	faith [‡]					
	against my will [‡]					
	etc. [‡]					

3.3 대상자의 성취목표, 자기조절학습능력, 자율성 지지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성취목표, 자율성 지지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유의하게 정적상관을 나타낸 것은 숙달목표($r=.626, p<.001$), 수행접근목표($r=.553, p<.001$), 자율성지지($r=.398, p<.001$)이었고, 자율성지지와 유의하게 정적상관을 나타낸 것은 자기조절학습능력($r=.398, p<.001$), 숙달목표($r=.357, p<.001$), 수행접근목표($r=.234, p<.001$)이었다. 그 외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r=.545, p<.001$)의 상관이 유의하게 높았다. 수행회피목표와 유의하게 부적상관이 있는 것은 수행접근목표($r=-.480, p<.001$), 숙달목표($r=-.327, p<.001$), 자기조절학습능력($r=-.326, p<.001$)이었으며, 자율성지지($r=-.113, p=.054$)는 부적상관은 있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chievement goal and autonomous support.

Variable	1	2	3	4	5
1. mastery goal	1				
2. performance-approach goal	.545 ($p<.001$)	1			
3. performance-avoidance goal	-.327 ($p<.001$)	-.480 ($p<.001$)	1		
4.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626 ($p<.001$)	.553 ($p<.001$)	-.326 ($p<.001$)	1	
5. autonomous support	.357 ($p<.001$)	.234 ($p<.001$)	-.113 ($p<.001$)	.398 ($p<.001$)	1

3.4 대상자의 성취목표와 자율성지지가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성취목표와 자율성지지가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은 1.862로 2에 가깝기 때문에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분산팽창지수 VIF는 1.25-1.69로 10이하이었고 상대치수는 2.63-2.66으로 15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P-P도표에서 잔차의 선형성이 확인되었고 산점도에서 잔차의 분포가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 있어 오차항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회귀분석의 가정을 모두 만족하였으므로 다중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학년, 성별, 지원동기 등 일반적 특성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통제된 상태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한 결과,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숙달목표($\beta=.390, p<.001$), 수행접근목표($\beta=.272, p<.001$), 자율성지지($\beta=.184, p<.001$)이었으며, 49%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variable	B	SE	β	t	p	VIF	Durbin-Watson
constant	152.586	15.427					
mastery goal	2.381	.331	.387	7.183	.000	1.657	1.862
performance-approach goal	1.394	.280	.272	4.987	.000	1.694	
performance-avoidance goal	-.161	.297	-.027	-.541	.589	1.415	
autonomous support	1.610	.409	.184	3.938	.000	1.251	
$R^2 = .511$ Adj. $R^2 = .490$ $F = 24.262$ $p < .001$							

3.5 성취목표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에서 교수자의 자율성지지가 미치는 매개효과

연구대상자의 성취목표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수자의 자율성지지 매개효과는 Table 5, Table 6과 같다.

교수자의 자율성지지 매개효과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첫째, 숙달목표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율성지지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 단계에서 숙달목표가 교수자의 자율성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beta=.357, p<.001$). 2 단계에서 숙달목표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beta=.626, p<.001$), 숙달목표를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자율성지지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199, p<.001$). 즉, 숙달목표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직접 영향을 줄 때의 β 값($\beta=.626$)과 숙달목표와 자율성지지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줄 때의 β 값($\beta=.555$)을 비교했을 때 숙달목표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직접 영향을 줄 때의 β 값이 크므로($\beta=.626 > \beta=.555$) 자율성지지의 매개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시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3.922, p<.001$).

둘째, 수행접근목표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율성지지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 단계에서 수행접근목표가 교수자의 자율성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beta=.234, p<.001$). 2 단계에서 수행접근목표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beta=.553, p<.001$), 수행접근목

표를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자율성지지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284, p<.001$). 수행접근목표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직접 영향을 줄 때의 β 값($\beta=.553$)과 수행접근목표와 자율성지지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줄 때의 β 값($\beta=.486$)을 비교했을 때 수행접근목표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직접 영향을 줄 때의 β 값이 크므로($\beta=.553>\beta=.486$) 자율성지지의 매개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시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Z=.508, p<.001$).

결과적으로 성취목표와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지지가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Mediating effect of autonomous support in the relationship mastery go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procedur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Adj. R ²
1	mastery goal	autonomous support	.252	.039	.357	6.522	.000	.124
	mastery goal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3.848	.282	.626	13.668	.000	.390
2	mastery goal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3.410	.293	.555	11.618	.000	.422
	autonomous support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1.737	.417	.199	4.169	.000	
Sobel test(Z)=3.922 p<.001								

Table 6. Mediating effect of autonomous support in the relationship performance-approach go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procedur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Adj. R ²
1	performance-approach goal	autonomous support	.137	.033	.294	4.105	.000	.051
	performance-approach goal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2.834	.251	.553	11.282	.000	.303
2	performance-approach goal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2.493	.244	.486	10.218	.000	.377
	autonomous support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2.480	.415	.284	5.972	.000	
Sobel test(Z)=0.508 p=.612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취목표, 자기조절학습능력, 교수자의 자율성지지의 관계를 확인하고 변수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의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취업 때문에 지원한 학생이 41.2%, 적성에 맞거나 신념이 있어서가 33.6%이었다. 박미화(2017)의 연구에서 취업 때문에 지원한 경우가 35.5%로 본 연구 결과보다 낮았으며, 적성과 신념이 맞아서 지원한 경우는 32%로 유사하였다[28]. 강혜승과 김윤영(2017)의 연구에서는 취업 때문에 지원한 경우가 26.3%로 본 연구 결과보다는 낮았고, 적성에 맞아서 지원한 경우가 33.3%로 유사하였다[29]. 두 연구 모두 연

구대상자가 간호대학생으로 적성과 신념에 따라 지원하는 비율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보건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미림과 이효철(2018)의 연구에서는 취업률이 높아서 지원한 학생이 51.5%로 본 연구 결과보다 높았고, 적성에 맞아서 지원한 학생이 26.2%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낮았다[30]. 간호학과를 지원할 때 적성과 신념을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가 보건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보다 높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앞으로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해본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5점 만점에 3.31점으로 의과대학생, 간호대학 신입생, 일반대학생과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21,31,32].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유의하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성취목표는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목표의 하부요인 중 숙달목표가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이 있으며($r=.626, p<.001$)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87, p<.001$). 숙달목표를 가진 학습자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조절하고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기조절전략과 관련이 높다는 서미옥(2012)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33]. 또한 수행접근목표도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정적 상관이 있으며($r=.553, p<.001$)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eta=.272, p<.001$) 윤아름(2009)의 연구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숙달목표($r=.456, p<.001$), 수행접근목표($r=.338, p<.001$)가 정적상관이 있었으나 본 연구 결과보다는 낮은 상관을 보였고,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beta=.312, p<.001$)[23]. Kim의 연구에서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 모두 높은 집단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으며[34] 대부분의 연구에서 성취목표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상관관계도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어[35,13]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가 높을 경우 자기조절학습능력도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학습자 개인의 성취목표의 하부요인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도전을 선호하는 숙달목표지향성인 학습자에게는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식되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여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행접근목표지향성인 학습자인 경우에는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록 학습자의 능력에 맞는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학습자를 인정하고 지지해준다면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향상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성취목표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교수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반면에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수행회피목표($r=-.326$, $p<.001$)는 유의하게 부적상관이 있었다.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아롬의 연구에서도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나($r=-.155$, $p<.001$) 본 연구 결과보다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수행회피목표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실패를 회피하기 때문에 자기조절학습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제시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간호교육에도 PBL, 플립러닝 등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이 도입되어 시도되고 있으나 간호사 자격증 취득과 병원 취업을 위한 자격요건들을 갖추기 위해 시험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인 면이 많다. 이러한 간호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미래사회의 간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수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수자의 노력 중 하나로 학생들의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교수자의 자율성지지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beta=.184$, $p<.001$), 숙달목표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칠 때 매개효과가 있었다($Z=3.922$, $p<.001$).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유미, 엄우용(2015)의 연구에서 자율성지지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36], 자율성지지가 자기조절 동기와 정적 상관이 있다는 이미옥외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37]. 이와 같은 결과들은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의견을 존중해주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서 학생의 관점을 인정해주는 교수자의 자율성지지가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인간은 자율성이 부여될 때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하며 자율적으로 선택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자기조절능력을 발휘한다[38]. 실습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이 향

상되고[39] 자신감이 증가되는 연구결과처럼[40] 교수자는 교육현장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과제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자율성지지를 위한 전략들을 다양하게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생들의 성취목표와 교수자의 자율성지지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자율성지지는 숙달목표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간호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두려움과 회피보다는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밝힌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외에 더 많은 관련요인들을 확인하고, 확인된 요인들 중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제거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확인된 관련요인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교수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취목표 하부요인에 속하는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중에서 학습자의 유형을 파악하여 유형별 학습지도를 위한 교수법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B. Ryan, M. Julian, S. David, H. Rose, J. H. Stanley, Z. Benjamin & A. C. David. (2015). Self regulated learning in simulation based training: a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 *Medical Education* 49, 368 - 378
DOI: 10.1111/medu.12649.
- [2] C. Patterson, D. Crooks & O. Lunyk-Child. (2002). A new perspective on competencies for self-directed learning. *J of Nursing Education* 4(1), 25-31.
DOI :10.3928/0148-4834-20020101-06
- [3] B. J. Zimmerman & M. Martinez-Pons. (1988). Construct validation of a strategy model of student self-regulated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284-290.
DOI : 10.1037/0022-0663.80.3.284
- [4] P. R., Pintrich & E. V. De Groot. (1990). Motivational &

-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92-100.
- [5] A. Y. Kim, J. E. Cha, D. S. Lee, I. H. Lim, H. Y. Tack & Y. N. Song. (2008). Influence of parents' autonomous support on elementary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efficac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etermined motiv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5(4), 3-24.
- [6] Y. B. Heo & A. Y. Kim. (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perception of their teacher's autonomous support and self-directed learn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6(4), 1075-1096.
- [7] R. M. Ryan & E. L. Deci.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 - 78.
DOI : 10.1037/0003-066X.55.1.68
- [8] W. S. Grolnick & R. M. Ryan. (1989).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143-154. DOI: 10.1037/0022-0663.81.2.143
- [9] Skaalvik, E. M. (1997). Self-enhancing and self-defeating ego orientation, achievement, self-perceptions, and anxie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 71-81.
- [10] B. J. Zimmerman. (1989). A social-cognitive view of self-regulated academic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329-339.
- [11] B. R. Choi. (2014). The effect of personality on learning flow: with self-directed learning as mediating variabl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5), 247-267.
- [12] Pintrich, P. R. (1995). *Understanding self-regulated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 [13] M. H. Yang & J. C. Oh. (2006).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2*2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3), 747-764.
- [14] C. Ames. (1992). Classroom: goal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 261-271.
- [15] J. L. Meece, P. C. Blumenfeld & R. H. Holye. (1988). Student's goal orientations and cognitive engagement in classroom activit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514-523.
- [16] F. S. Elliot & C. S. Dweck. (1988). Goal: An approach to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5-12.
- [17] A. J. Elliot. (1999). Approach and avoidance motivation and achievement goals. *American Psychologist*, 34, 169-189.
DOI : 10.1207/s15326985ep3403_3
- [18] M. Middleton & C. Midgley. (1997). Avoiding the demonstration of lack of ability: An under explored aspect of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 710-718.
- [19] H. T. Shin & H. J. Ahn. (2014). The experience of the stop-out of fe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3(3).
DOI : 10.12934/jkpmhn.2014.23.3.165
- [20] Y. S. Kim & H. I. Cho. (2014).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2(3) 147-174.
- [21] E. A. Park & K. H. Chun. (2014). Differences in non-cognitive factors influencing the academic achievement of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16(1), 32-41.
- [22] A. Elliot & M. A. Church. (1997). A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461-475.
- [23] A. R. Yoon. (2009)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chievement go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i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24] M. K. Chung. (2005).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ed Learning Test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Evaluation*, 18(3), 155-181.
- [25] G. C. Williams, & E. L. Deci. (1996). Internalization of biopsychological value by medical students: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767-779.
- [26] J. W. You. (2011).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ocial factor, psychological mediators and motivational factor for enhancing learners' engagement*.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7] Y. M. Cha. (2017). *Structural relations among autonomy support, self determination motivati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learning flow as perceived by junior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 [28] M. H. Park. (2017). Convergence effects of nursing

- professional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patient safety attitude 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1), 317 - 327.
- [29] H. S. Kang & Y. Y. Kim. (2017).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5) 617-625.
- [30] M. L. Lee & H. C. Lee. (2018). A study of satisfaction and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in department health scienc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2(2), 137-153.
- [31] J. Y. Park, C. H. Woo, J. H. Lee & J. M. Kim. (2018). The impact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on learning persistence intention in freshmen in nursing colleg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learning motivation.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4(2), 127-136.
- [32] B. S. Kim. (2016).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for intimate relations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0), 245-252.
- [33] M. O. Suh. (2012). Exploring the relationship among self-regulation strategies, achievement of goal-oriented and learning styles in undergraduat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0(1), 55-79.
- [34] Y. J. Kim. (2011). The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achievement goal profiles. *J Educ Stud*, 32(1), 1-22.
- [35] S. Y. Kwon. (2008).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2x2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24(1), 213-240.
- [36] Y. M. Cha & W. Y. Eom. (2015). Effects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of junior college students on learning flow. *Korean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9(1), 83-105.
- [37] M. O. Lee, S. Y. Kim & M. Y. Lee. (2015). The influence of autonomous support and self-determined motivation on learning outcome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8), 5223-5231.
- [38] E. L. Deci. & R. M. Ryan.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y Inquiry*, 11(4), 227-268.
DOI : 10.1207/S15327965PLI1104_01
- [39] J. H. Park. (2016). The effect of clinical convergence self-directedness practice learning program on self-directedness and competency in fundamental nursing skills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onvergence Society*, 7(4), 51-58.
- [40] H. Y. Jung & S. Kang. (2018). The influence of recognition of importance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n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basic nursing skill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6), 241-250.

조혜경(Cho, Hae Kyung)

[평생회원]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6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호스피스, 인간관계
- E-Mail : hkcho43@hanmail.net